

고창군,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보전·관리·경제적 활성화 등 성과 인정받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22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대회장 주동단)' 시상식에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단체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에 산재한 전통,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해 복합적 자연생태관광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농축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도모해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썼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발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

하는 등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은 월간 자랑스런한국인과 (주)뉴미디어코리아가 주최하고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제품과 상품, 특산물, 각 지역과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나 축제, 인물 등을 선정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해 자치단체와 명인, 학자, 기업체 등 14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요천 100리 숲길'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남원시, 요천 100리 숲길 우수사례 '호평'

교육·관목·초화류 50여만본 식재 생태 숲길 조성

남원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요천 100리 숲길'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완주 시장은 지난 20일 충남 예산 리스스스캐슬에서 열린 제14회 시장, 군구, 구청장 산림연합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여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요천100리숲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요천상류 장수군 경계부터 하류의 곡성군 경계 삼진강 자전까지 하천 양방향 62km 제방에 교목, 관목, 초화류 50여만본을 식재하여 생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숲길조성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자전계 동호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요천100리 숲길을 요천을 중심으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덕음산 숲바람길과 향기원·구역사 꽃단지 등 요천생태습지 등을 연계한 자전거, 트레킹, 산책 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산림연합회를 통해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국에 알리고, 남원역 이점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남원 중심부 개발을 위한 옛 역사 공원화사업에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다락골마을사업단, 산채마을로 선진지 견학 실시

재배기술 이론 교육 등 진행

임실군은 다락골마을사업단 소속 관촌면 신전마을과 신덕면 금정마을 주민 30여명이 경기도 양주시 덕동동에 위치한 산채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실·나물천치유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선진지 견학은 병풍취, 곰취, 명이, 다래, 산나물 등의 재배기술 이론 교육과 산나물 재배지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나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과정을 견학하고 산삼주스, 산채 케이크 등의 시식을 통해 나물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 모델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17년까지 자체사



관 관계자는 "견학을 통해 나물재배가 조기에 정착하고 농가들의 새로운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17년까지 자체사

업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나물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30억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 나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받아

순창군이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동안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지정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지정은 전체 업소수 330여개의 5% 이내 16개소 범위에서 선정한다.

군은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서비스, 제공빈찬과 가격표시, 좋은식단

실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안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면에서 제작한 모범음식점 인증마크(표지판)를 부착할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 사용료의 20%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사업 등 융자지원 신청 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객관적 기준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모범업소 선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 후 군청 민원과 위생계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원원 기자

어르신들 위한 '국악한마당'

27일 순창읍 일품공원에서... 구곡순담과 함께 병행

대한민국 대표 장수마을인 순창에서 오는 27일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제8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과 KBS 국악한마당이 동시에 열려 가을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순창읍 일품공원 야외특설무대와 주변에서 열리는 제8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 행사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장수벨트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는 풍물공연 어린이댄스공연이 펼쳐지고 건강강단 체험부스 건강장수 농특산물 시음 및 판매부스도 운영된다.

이어 구곡순담 도약 순창선포식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구례군의 실버음악단, 곡성군의 난타, 담양군의 라인댄스, 순창군 시조합창단 등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펼치는 문화공연도 행사의 흥을 돋울 전망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행사의 백미인 KBS 국악한마당 녹화가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수준높은 국악

의 향연을 선사한다. KBS 국악한마당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창 신영희 선생의 춘향가 중 십장가를 비롯해 놀이꾼들 도다도담에 열려 가을에 어울리는 격조 높은 공연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32호인 농요 금과들소리도 공연돼 순창의 소리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도 갖는다.

이외에도 줄타기 공연, 민속놀이 경기, 관공홍보 부스, 구곡순담 장수벨트 역사관 등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도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황죽주 군수는 "오는 27일에는 순창에서 제8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과 KBS 국악한마당이 동시에 개최된다"면서 "바쁜 농사일에서 벗어나 모처럼 즐거운 국악공연도 관람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원 기자



고창 엘림건설, 500만원 기탁

고창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군에 따르면 엘림건설 ENG(대표 조보익)가 고창군 희망복지지원단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엘림건설은 매년 고창군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지역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성금을 기탁을 실천하고 있다.

조보익 대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성남고창군민회(회장 김현진) 회원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郷심을 모아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고창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정 군수는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21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의안처리결과 및 운영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보영 조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고창군 건축조례 등 생활에 밀접한 16건의 의안이 원안결 되고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고창군 주차장 조례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 운영 조례가 수정결 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고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당초 본예산 4,755억원에서 33억원 증액된 4,788억원이다.

최인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상식을 기초로 해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대화로 해결방법을 모색 바란다. 하고,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 성황리 막내려

작품 전시·체험 등 선보여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평생학습관, 여성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지난 21일 춘향문화회 솔하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남원에서 즐기는 행복(HAPPY)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생학습 한마당은 한 해 동안 실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총 정리하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30개 기관 단체에서 참여하여 성과 발표와 작품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드림 색소폰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과 자치사랑방·평생학습센터·동아리·기타 평생학습 단체 20개팀이 참가하여 한국무용, 요가, 우

쿨릴레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남원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총 정리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도예 작품 등 4개 단체 14개 프로그램 작품을 전시하였고, 홍보체험관에서는 소원팔찌 만들기 등 8개 단체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원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배움의 기쁨과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섬진강 동자개 방류

임실군은 고유 토종어류 개체수를 늘리고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섬진강 상류에서 동자개 4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행사는 지난 21일 군청 관계자, 환경단체 회원 및 관내 초등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상류인 관촌면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행사 후 참석자들은 하천정화활동을 비롯해 생태계 교란식물 가지파 제거활동도 병행해 섬진강 생태복원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외래 어종인 큰입배스와 블루길의 천적인 동자개 방류로 생태계 교란 방지 수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을 통해 섬진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경찰, 경찰의 날 기념행사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에서는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및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안협력위원회 서한복 위원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자이원장 경위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주민과 경찰관 37명이 각 종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식전행사로 21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경찰관 등이 안장되어 있는 순창읍 소재 경·경 합동 추념탑을 찾아 추념행사로 거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국 경찰발전위원장은 "평소 순창경찰서 직원들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원원 기자